

45.1.21.2014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께

이곳 대서양의 바다가 연일 높은 파도로 부서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것 처럼 이곳의 바다는 겨울 내내 사납다고 합니다. 성탄 선물로 받은 따뜻한 차들이 마음을 훈훈하게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날때 가장 좋은 것이 따뜻한 차 한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희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많은 분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 가족이 놀러와 공기놀이와 윷놀이 까지 하고 갔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곳에서도 한국의 공기놀이와 흡사한 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 주었더니 대뜸 자기 식으로 해서 보이더라구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요르단에서 만난 이즈라를 떠올렸습니다.

역척스럽고 정많은 아랍 여인네들...앞으로 이즈라와 친했던 것 처럼 이분과도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딸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아주 영리해 보였습니다. 아랍권의 남자들은 보통 공부도 안하고 그냥 탕자탕자 학교 졸업장만 탄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습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봐야 결국은 그런 남자 아래서만 일할 수 있어도 말이지요. 이름이 '하프사' 인데 암사자를 뜻한답니다. 참고로 시리아 왕의 이름 '아사드'는 숫사자를 뜻합니다. 하프사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우리 ㅇ영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만에 친구 먹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제와 생명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주인 남동생은 최근에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그마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수퍼마켓에서 한국 교환 학생 둘을 만났습니다. 동양 여자아이라고 모로코 남자 학생들이 줄줄이 따라 장을 보러 왔더군요. 그래서 저희 연락처를 주고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 학생으로 와있는 프랑스 학생, 싱가포르 학생, 모로코 학생을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갔습니다. 이곳은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귀한 것들이지요. 모로코 학생은 베르베르 민족으로 하얗고 아주 예쁘고 착하게 생겼습니다. 동양권에 관심이 많아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갈 계획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이 무슬림인 학생들을 초대해놓고 ㅇ스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학교 선생님들과 가족들도 초대하고 무엇보다 이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도 초대해 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시내에서 40 분 이상 떨어져 한국 주재원들이나 다른 한국 분들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집에서 오분 거리에 이십명 가까이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100 명이나 될까한 이 큰 도시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삼주 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이곳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예배처는 아니지만 한 동안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심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려면 아랍어나 불어를 배워야합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기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 큰 열매 맺으시길 기도드립니다.

2014 년 1 월 21 일

하늘이 이쁜 나라에서 장사차/오즈 드림



1. 좋은 기도를 찾게해 주심 감사
2. 영혼들을 영접하고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하여
3. 아랍어와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4. 장애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